

성인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과 영향요인 연구 : 청년, 중년, 노년층의 비교

정인희

본 연구는 성인기를 청년, 중년, 노년 3세대로 나누어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보고 생애주기별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인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중년, 노년층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의도적 표집에 의해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 정도는 생애주기별로 다르며, 중년층이 청년, 노년층에 비해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회귀분석결과 청년, 중년, 노년층 모델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주거소유, 부정적 정서가 중년층의 경우 결혼여부, 월수입, 부정적 정서, 사회적지지가 노인층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주제어: 자아존중감, 생애주기, 청년·중년·노년층

1. 서론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William James(1892)가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가치, 즉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과거의 예측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성취수준”으로 정의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후 자아존중감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매우 광범위하게 심리·상담, 교육, 사회복지, 간호·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중요한 욕구 중 하나이다. Maslow(1965)는 모든 인간은 자아존중감에 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Branden(1992)는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충족여부에 따라 생사를 가름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알기 위해서도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리

한 자아존중감은 환경과 주변환경과 관련되어 형성된다.

정옥분(2003)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간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자아존중감을 다룬 초기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김남중, 2004; 김옥, 2006)이후 자아존중감 형성이나 발달과 관계있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김상민, 2008; 김종임 외, 2008), 인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이상록·이순아, 2010; 강월숙·문재우, 박재산, 2011; 김순안·김승용 2011)들이 이루어졌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인 성인초기와 경제적으로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안정되고 직장에서도 높은 지위와 책임을 갖는 중년기 시기 또한 여러 문제에 따른 위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는 노년기 시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사회의 상당수의 노인들 대부분은 원치 않는 은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상태의 변화,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역할갈등 및 소외 등의 문제로 위기를 겪게 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과 적응,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까지 인간발달 연구자들은 성인기 발달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유는 일단 성인이 되면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성인기 발달에 관심이 갖게 되고 청년기 이후에도 유의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 분야에서 전 생애 적 접근법이 최근 활용되고 있다(정옥분, 2007).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최근 성인기에 이르러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기 자아존중감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노인을 대상(배강대, 2006; 이은영; 2008; 오창섭, 2009; 김경태, 2010)으로 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초기인 청년기와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자아존중감은 각각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생애주기별로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례, 2009)만 있을 뿐 이를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청소년기 이후시기인 성인기를 청년, 중년, 노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각각의 집단이 경험하는 자아존중감 정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종교활동, 사회활동, 사회적지지, 우울, 불안, 무기력, 죽음 등과 같은 정서 상태와 대상자들의 특성을 기초로 각 연령 집단의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Coopersmith, 1967). 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 판단으로 자신의 전인격적 존재에 부여한 가치이며 자기를 향한 평가적·감정적 개념이다(Rosenberg and Simons, 1971).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보고,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수용, 존중하며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자영, 2009). 대부분의 인간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자기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또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으로 부터 존경 받기를 원한다(Maslow, 1970).

Maslow(1970)는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욕구 중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욕구 중 하나로 자신을 관심, 인정, 존경받을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시험받게 되며 또한 증진할 도전과 기회를 갖게 된다.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청년기는 신체적 강성함과 더불어 심리사회적인 발달과정을 하는 시기이다. 신체의 변화, 성공과 실패, 사회적 책임감, 부부관계의 변화, 자녀의 독립 등 새로운 목표나 과업이 요구되는 시기인 중년기 또한 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약화, 신체적·인지적 상실, 가족과 친구 등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 사회적 역할 수행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은 도전 받게 된다(임희규, 2010).

인간은 각자가 지닌 역량과 주어진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며,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낮고 비관적인 열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형성되거나 받을 수 있는 기제로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 내에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자아존중감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이은영, 2008).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 요소이다. 높은 자아존중감이 유지될 때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2. 자아존중감 영향 요인

인간은 누구나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높이려는 보편적인 욕구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여러 가

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발달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전 생애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이자영, 2009).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안정적인 기제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의 변화, 역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가변적인 내적 요인이라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Sherman, 1981; 양점도, 2008 재인용).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인간의 적응과 심리 · 정신건강에 직 ·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으며 성인기 자아존중감 연구는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다(정희옥, 2003).

성인기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시기로 신체적 · 심리적으로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인기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우울, 불안, 무기력, 죽음 등을 하위요인으로 한 부정적 정서와 사회활동, 종교활동, 사회적지지 등을 요인으로 들고 있다. 먼저, 우울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은 우울의 한 취약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들고 있으며 많은 심리학자들 또한 신경증과 부적응의 기저에 자아존중감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최미례, 2003; 김정숙, 2007; 송기숙, 2007).

Jacobson(1953)는 우울의 근본 원인으로 자아존중감의 상실을 들고 있으며, Bibring(1953) 또한 무력감, 자아존중감 확립의 실패는 우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Brown, et. al.(1990)는 1년간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한 결과 우울의 취약요인이 자아존중감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종교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인간에게 종교활동은 삶의 기본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은 생애 어느 단계에서나 생애에 대한 의미의 문제, 귀속감, 자기 정체감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김경태, 2010). 일반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문제를 극복하는데 용이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건전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안다(남영호, 2007). 특히 노인에게 있어 종교생활은 노인이 겪는 배우자상실이나 소외, 고독, 우울, 죽음의 두려움 등의 정신영역에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김경태, 2010 재인용).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사회적 환경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Kahn, 1985).

Harters(1990)는 청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정서적 · 사회적 지지를 들고 있다. 황윤경(1996)은 사랑, 도움, 수용 등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인정받고 있음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Krause(1987)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은영(2008)은 배우자와 자녀의 사회적 지지가 은퇴 남성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존중감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중년, 노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자마다 발달단계 기준이 연령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인정과 최혜경(2006)의 분류를 참고하여 정순들(2007)이 연구에서 분류한 것을 참고로 하여 30세 미만은 청년으로, 30-64세까지는 중년, 65세 이상은 노년으로 분류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달간 이루어졌으며, 표본은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추출되었다. 청년, 중년의 경우 조사가 가능한 경기도의 대학교 한 곳과 몇 군데의 사회복지기관을 선택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노년층의 경우에는 설문내용의 이해부족과 응답에 대한 기술적 지식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노인복지관 8곳을 선정하여 사전에 조사교육을 받은 사회복지과 학생들에 의해 직접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청년층 107부, 중년층 173부, 노년층 228부로 총 508부가 회수되었다.

2.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중에서 Rosenberg(197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10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을,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청년.809, 중년.758, 노년 노년 .678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2) 종교활동

종교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Ainsley & Smith(1984)가 분류한 척도를 중심으로 김수연(198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의 문항별 내용은 종교기관 참여를 묻는 4문항과 개인적 종교참여 정도를 묻는 4문항, 종교활동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묻는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매우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청년 .971, 중년 .973, 노년 .96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교활동 척도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맥아더 연구(Seeman, *et. al.*, 1996)와 Seeman(1996)의 연구에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원 등을 관계망의 크기와 사회적 지원의 크기정도를 묻는 문항을 수정하여 조용하(2010)가 선행연구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적 지원 및 관계망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문항은 사회지원 및 관계망 7문항, 대인관계 7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대인관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청년 .895, 중년 .927, 노년 .92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 척도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4) 부정적 정서

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Adey & Leirer의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GDS)와 heikn & Yesavage의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Shorter Version: GDS-S)을 김재중(2008)이 수정·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한 기분, 불안, 무기력, 허무, 불행, 불편, 죽음에 대한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항 3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매우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청년 .847, 중년 .836, 노년 .802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 척도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작업(Data cleaning)을 거쳐 사회과학통계프로그램

인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검정,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30세미만인 청년층의 경우 96.3%가 대학교 재학 이상이었고, 30~64세까지의 중년의 경우는 고졸 이상이 전체 74.6%, 대학교 재학이상이 20.2%, 중졸이 5.2%로 나타나 청년층과 차이가 있었다.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경우에는 초졸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28.9%, 고졸 28.5%, 대졸 7.9%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45.048$, $p<.001$). 종교 역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498$, $p<.001$). 세 집단 모두 무교(37.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독교(35.4%), 불교(19.7%), 천주교(8.9%)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청년, 중년의 경우에 비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결혼 상태($\chi^2=366.512$, $p<.001$)에 따라, 가구 월수입($\chi^2=185.345$, $p<.001$)에 있어서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청년	중년	노년	전체%	χ^2
		빈도(%)	빈도(%)	빈도(%)		
성 별	남	28(26.2)	64(37%)	77(33.8)	169(33.3)	3.538
	여	79(73.8)	109(63%)	151(66.2)	339(66.7)	
교육 수준	초졸	0	0	79(34.6)	88(17.3)	445.048***
	중졸	0	9(5.2%)	66(28.9)	66(13)	
	고졸	4(3.7)	129(74.6%)	65(28.5)	198(39)	
	대졸 이상	103(96.3)	35(20.2%)	18(7.9)	156(30.7)	
종교	기독교	37(34.6%)	59(34.1)	84(36.8)	180(35.4)	28.498***
	천주교	5(4.7%)	15(8.7)	25(11)	45(8.9)	
	불교	5(4.7%)	26(15)	45(19.7)	76(15)	
	무교	57(53.3%)	70(40.5)	65(28.5)	192(37.8)	
	기타	3(2.8)	3(1.7)	9(3.9)	15(3)	
주거 소유	자가	49(45.8)	109(63)	128(56.1)	286(56.3)	12.871
	전세	36(33.6)	37(21.4)	50(21.9)	123(24.2)	
	월세	14(13.1)	22(12.7)	34(14.9)	70(13.8)	
	영구임대	4(3.7)	3(1.7)	5(2.2)	12(2.4)	
	기타	4(3.7)	2(1.2)	9(3.9)	15(3)	

결혼 여부	미혼	85(79.4)	14(8.1)	6(2.6)	127(25)	366.512***
	기혼	22(20.6)	148(85.5)	134(58.8)	282(55.5)	
	이혼	0	9(5.2)	13(5.7)	22(4.3)	
	사별	0	2(1.2)	75(32.9)	77(15.2)	
가구 월수입	100만원 미만	59(4.7)	12(6.9)	120(52.6)	137(27)	185.34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2(29.9)	35(20.2)	59(25.9)	126(24.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5(23.4)	50(28.9)	32(14)	107(21.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5(23.4)	42(24.3)	10(4.4)	77(15.2)	
	400만원 이상	12(11.2)	32(18.5)	0	44(8.7)	

***p<.001

2. 연구대상자 자아존중감 관련요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요인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정서불안(F=29.44, p<.001), 종교활동(F=18.34, p<.001), 사회적지지(F=18.85, p<.001)등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정서불안 요인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은 차이가 없었으나 중년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은 중년층과 노년층이 차이가 없었으며 청년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요인에서는 청년층과 중년층은 차이가 없었으나 노인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들 중 부정적 정서는 중년층, 청년층, 노인층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이 중년기 여성에서 높았다는 Kim & Shin(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박영례(2009)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종교활동은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순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에게 종교활동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비공식적 지지기반으로 배우자의 상실, 소외, 고독, 우울, 죽음 등의 정신영역에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김경태, 2010; 재인용). 많은 선행연구(최영애, 2003; 김형남, 2006; 김경태, 2010)들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종교활동을 들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부정적 정서, 종교활동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이은영, 2008; 공혜선, 2011)들은 사회적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표 2> 자아존중감 관련 요인들의 특성

변수	청년		중년		노년		F	Scheff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정적 정서	3.33	.71	3.74	.66	3.22	.68	29.44***	(ac)b
종교활동	2.08	1.02	2.62	1.11	2.84	1.06	18.34***	a(bc)
사회적지지	3.76	.55	3.65	.60	3.37	.64	18.85***	(ab)c

p<.01, *p<.001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분포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35점 이상이 9.3%, 30~34점이 38.3%, 25점~29점이 45%였으며, 중년층은 35점 이상이 20.2%, 30점~34점이 49.6%, 25점~29점이 28.4%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35점 이상이 3%으로 청년층, 중년층에 비해 낮았으며, 30점~34점이 41.6%, 25점~29점이 49.1%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경우에는 35점 이상이 20.2%로 나타나 청년, 노년층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은 이들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년기는 규칙이나 규준의 제저자이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사회의 진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존재로 지배계층(ruling class) 혹은 명령하는 세대라고 불린다(장휘숙, 2000).

3. 연구대상자 자아존중감 정도

<표 3>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분포

자아존중감 점수	청년		중년		노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점 ~ 19점	1	.9	0	0	0	0
20점 ~ 24점	7	6.5	3	1.8	14	6.1
25점 ~ 29점	48	45	49	28.4	112	49.1
30점 ~ 34점	41	38.3	86	49.6	95	41.6
35점 이상	10	9.3	35	20.2	7	3

연구대상자들의 세대별 자아존중감의 내용 및 경험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F=30.44, p<.001)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한다’(F=5.21, p<.01),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F=11.72, p<.001),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F=33.04, p<.001),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F=17.36, p<.001),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F=15.85, p<.001),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 한다’(F=2.87, p<.05),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F=9.25, p<.001), ‘10.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F=16.10, p<.001)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F=.98)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0.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는 질문에서는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4.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의 경우 중년층이 3.34, 청년층은 3.28, 노년층은 2.86로 나타나 중년층이 자아존중감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노인층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의 경

우에는 청년층이 2.80로 중년층 3.24, 노년층 3.0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세대별 전체 자아존중감 점수는 4점 만점 중 청년이 2.92, 중년이 3.14, 노인이 2.89로 중상정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3세대 모두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긍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층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김귀분(2008)의 연구에서 보고한 3.0, Choi(2003)의 연구에서 보고한 3.23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세대별 자아존중감의 내용 및 경험

변수	청년(a)		중년(b)		노년(c)		F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22	.53	3.27	.49	2.89	.54	30.44***	(ab)c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03	.40	3.17	.43	3.04	.44	5.21**	(ac)b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3	.65	3.32	.63	3.05	.59	11.72***	(ac)b
4.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3.09	.47	3.34	.53	2.86	.67	33.04***	abc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2.88	.63	3.16	.64	2.79	.62	17.36***	(ac)b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05	.52	3.29	.56	3.01	.47	15.85***	(ac)b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2.93	.52	3.07	.57	2.96	.57	2.87*	-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2.23	.73	2.29	.76	2.35	.70	.98	-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05	.74	3.28	.72	2.97	.71	9.25***	(ac)b
10.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80	.68	3.24	.65	3.03	.61	16.10***	abc

*p<.05, **p<.01, ***p<.001 * 역채점 문항

3. 자아존중감에 관한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VIF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아존중감에 대해 청년, 중년, 노년층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청년층(F=11.077, p<.001), 중년층(F=13.219, p<.001, 노년층(F=11.111, p<.001)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갖는 설명력은 52.8%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정적 정서 상태(β=.680)와 주거소유(β=.172)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 즉 우울, 불안 등이 청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결과는 선행연구(최미례, 2003; 김종임, 2008)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중년층이 갖는 설명력은 45.2%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여부(β=.124), 월수입(β=.143), 부정적 정서(β=.455), 사회적지지(β=.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관련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도환(2001), 민소영(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적지지, 우울감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숙정(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 노년층이 갖는 설명력은 34.8%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beta=.435$), 사회적지지($\beta=.284$)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한 김귀분(2008), 김정숙(2007), 송기숙(2007)의 연구와 일치하며,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은영(2008), 양점도(2008), 공혜선(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즉 청년층은 주거소유에 따라 안정된 정서 상태에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층의 경우에는 결혼 여부에 따라, 수입이 높을수록, 안정된 정서 상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의 경우에는 안정된 정서 상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불안, 무기력, 죽음 등 부정적 정서는 청년, 중년, 노년층 모두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지지는 중년, 노년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중년기이후에 좀 더 실질적인 사회적지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송연수, 2002; 이은영, 2008).

〈표 5〉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 점수	청년		중년		노년	
	b	β	b	β	b	β
상수	1.350*		1.420		1.803	
성별	-.012	-.007	.016	.023	-.023	.036
학력	.025	.013	.024	.046	.018	.060
결혼여부	-.012	-	.098	.124*	-.001	-.002
동거형태	-.001	-.002	-.021	-.057	.000	.002
주거소유	.062	.172*	.021	.055	.007	.023
월수입	.037	.111	.040	.143*	.006	.034
부정적 정서	.355	.680***	.230	.455***	.191	.435***
사회활동의 수	-.040	-.071	-.022	-.046	-.007	-.017
종교활동	-.008	-.017	.021	.070	-.019	-.070
사회적지지	.072	.106	.128	.229*	.133	.284***
R	.727		.673		.590	
R ²	.528		.452		.348	
F	11.077***		13.219***		11.111***	

*p<.05,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자아존중감발달

이 성인기에 이르러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성인기를 청년, 중년, 노년 3세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요인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 종교활동, 사회적지지등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부정적 정서 요인은 청년층과 노년층은 차이가 없었으나 중년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종교활동은 중년층과 노년층은 차이가 없으나 청년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요인의 경우에는 청년층과 중년층은 차이가 없으나 노년층과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3세대 모두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세대 모두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긍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중년층이 청년, 노년층에 비해 높았다.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의 내용 및 경험 결과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 한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0.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는 질문에서는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의 경우 노년층이 청년층, 중년층에 비해 낮은 점수가 나타난 것은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약화, 신체적·인지적 상실 등이 이유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청년, 중년, 노년 세 연령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청년층의 경우 부정적 정서와 주거소유가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층의 경우 부정적 정서, 사회적지지가 노년층의 경우 부정적 정서, 사회적지지가 유의미한 설명요인이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우울, 불안, 무기력, 죽음 등을 하위요인으로 한 부정적 정서는 청년, 중년, 노년층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존중감 형성은 특정한 시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인 점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은 발달단계 마다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생의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는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다음 발달단계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발달과업의 실패는 개인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며 다음 발달단계의 성취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발달과업의 성공과 실패는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성인기인 청년, 중년, 노년 각각의 시기는 사회적 역할, 인생사건, 성격발달의 단계에 대한 사회의 정형화된 기대와 연합되어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각각의 시기

에 중요한 발달과업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여 생애주기별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시기에 자신에게 접하는 중요한 환경과 타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중년층이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았으며 이에 비해 청년층, 노년층은 낮게 나타났다. 청년기에 자신에 대한 평가와 타인과의 친근감 확립은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자기표현 기회의 확대, 연대감의 증진, 무력감과 극단적인 이기심의 극복, 인간관계의 개선, 사회적 자질의 향상 등 청년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노년층의 경우 노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시켜 외로움, 빈곤, 질병 등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는 의욕과 노력을 갖도록 교양증진, 여가선용, 세대차 극복하기, 심리 강화, 자신감 증진, 소외극복, 사회 참여, 배우자 및 동료와의 사별과 자신의 죽음에 대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청년, 중년, 노년 모든 연령층에 변함없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지 각 연령층에서 만 중요시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개입 방안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 결과 연령에 관계없이 우울, 불안, 무기력, 죽음 등 부정적 정서는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우울, 불안, 무기력 등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와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심리사회적 중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지지 요인은 중년층, 노년층에게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중년기, 노년기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저하, 경제력 감소, 신체저하 등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는 시기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나 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관련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프로그램개발이 요청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에 대한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의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이루어졌으며 결혼여부 등의 변수가 매우 제한된 값을 가지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역적 표집의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광범위한 표집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과 우울, 불안, 무기력, 죽음 등을 하위요인으로 한 부정적 정서와 사회활동 수, 종교활동, 사회적지지 요인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다양한 변인이 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되지 않은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기를 청년, 중년, 노년 3 세대로 나누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시기인 청년, 중년, 노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영향

력 등을 밝혀 이들에 대한 개입의 함의를 찾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월숙·문재우·박재선. 2011. 노인학대, 자아존중감,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및 정신 사회적 요인과 노인우울간의 관련성. 보건과 사회과학. 29: 153-183.
- 김경태. 2010. 노인의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중. 2004. 소년소녀가정세대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환. 2001.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13권.
- 김상민. 2008. 회상 집단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안·김승용. 2011.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2: 109-130.
- 김순이·이정인. 2007.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4(1): 103-109.
- 김육. 2006. 경로당 이용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271-293.
- 김정숙. 2007.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임·한선옥·윤혜선·이지현. 2008. 청년기의 자아존중감,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5(1): 107-113.
- 김재중. 2008.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남. 2007.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노화정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혜선. 2011.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영례·손연정. 2009. 성인여성의 생애주기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 스트레스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6(3): 353-361.
- 배강대·이현림. 2006. 회상을 활용한 지지적 집단상담이 노인의 무력감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7(2): 347-364.
- 송연수. 2002. 노인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에 관한 상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기숙. 2007. 노인의 자아존중감영향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록·이순아. 2010. 빈곤지위의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277-311.
- 이인정·최혜경. 2007.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나남.
- 이은영. 2008. 사회적 지지가 은퇴 남성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자영·남숙경·이미경·이지희·이상민. 2009.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1(1): 173-189.
- 임희규. 2010.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연구*. 7(2): 1-19.
- 오창섭·정원길. 2009.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노화정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19(2): 1-26.
- 양점도. 2008. 노인의 자아존중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18(1): 1-25.
- 장휘숙. 2000. 인간발달: 전 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순돌. 2007. 한국여성의 성공적 노후에 관한 연구: 청년, 중년, 노년층의 비교. *한국노인복지학회*. 36: 201-220.
- 정옥분. 200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07.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정희옥. 2003.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횡단 연구: 전라남도 지역의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1(3): 451-464.
- 조용하. 2010. 초기성인과 중기성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례.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증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영애. 2003. 노인들의 우울, 자존감 및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 27-47.
- 황윤경. 1996.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 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서울시 중학교, 이문계 고교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ley, S. C. and D. R. Smith. 1984. Aging and Religious Participation, *Journal of Gerontologist*. 39(4): 357-363.
- Bibring, E. 1953. *The Mechanism of Depression: Affective Disord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3-48.
- Brenden, N. 1992. The Power of Self-Esteem. Deerfield Beach Florida, Health Communication. In G. W. Brown, A. Bifulco, & B. Andrew. 1990. Self-esteem and Depression: III. Aetiological Issu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5: 235-243.

- Choi, E. H. 2003. The Correlation Study on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in Urban Area.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In T. A. Wills. ed. *Basic Process in Helping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Harter, S. 1990. Identity and Self Development. In L. S. Feldman and G.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obson, E. 1953. *Contributions to the Metapsychology of Cyclothymic Depression: Affective Disord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ahan, A. and L. H. Holt. 1985. Menopause: the Best Year of Your Life? London, Bloomsbury. Cited from L. Gannon and B. Ekstrom. Attitude Toward Menopause. *Psychology Quarterly*. 17: 295-288.
- Kim, J. S. and K. R. Shin. 2004. A Study on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Adul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2): 352-361.
- Krause, N. 198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4): 349-356.
-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York: Haper & Row Publishers Inc.
- Sherman, E. 1981. *Counseling and Aging: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Free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and R. G. Simons. 1971. Black and White Self-esteem, the Urban School Child, Washing D. C.: Monograph Seties.

丁仁姬: 경기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논문제목: 부모용 유아 기질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2009)를 취득하였고, 현재 안산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기질, 인지적 능력, 사회적능력 간에 구조모형 분석(2006),” “만 3-5세 유아의 기질 측정을 위한 부모용 검사도구 개발 연구(2009)” 등이 있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012, 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 (nahee8819@hanmail.net).

투 고 일: 2012년 11월 02일

수 정 일: 2012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04일